

‘무역 갈등’ 미·중…APEC 앞두고 ‘강·온 전략’

대두·희토류·입항수수료 ‘압박전’ 고조…물밑 대화도 병행
글로벌 경제 파장 우려…정상회담 전까지 돌파구 모색할 듯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수출 통제와 제재, 경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논의는 이어가되 강경 기조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갈등 속 구매를 사실상 멈추자 상을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 행위”라며 “우리는 식용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고 중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한화필리조선소 등을 포함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중국은 자국산 선박에 부과된 미국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밝혔고, “미국에 협력하며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과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실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이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중국 선박에 순타당 50달러(2028년 t당 140달러) 입항 수료를 이날부터 부과했다.
중국도 같은 날부터 미국 선박이 중국 항에 정박하면 순타당 400위안을 매기기 시작했으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긴장은 높지만 물밑 대화는 병행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실무 당국자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글로벌 증시 하락 등 파장을 고려해 정면 충돌은 자제하되 자력대를 높이는 조치를 내놓으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기조다. 추가 관세나 희토류 통제 등 본격 조치 시점도 11월 1일 이후로 잡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이번 갈등의 분수령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통제를 비판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두 정상이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싸우려면 끝까지, 대화하려면 대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중국을 조

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미중은 5월 상호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휴전’했지만, 중국의 통제 강화와 미국의 11월 1일 100% 추가 관세 예고가 맞물리며 갈등이 재점화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강온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파국으로 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관세 발효 전까지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농업·에너지·조선·물류를 둘러싼 상호 보복과 관세 공방이 양국의 ‘빅딜’ 압박 카드로 작동하는 가운데, APEC을 전후해 미중 무역의 향배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사태, 美·英도 나섰다

중국 출신 회장·프린스 그룹·진베이 그룹 등
사기 기업 제재…인신매매 노동자 고문·통제
미 “초국가적 범죄조직” 146건 제재 단행

미국과 영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전 세계 피해자들을 노리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통제하며 불법 스킴(사기)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젊은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자신들의 범죄에 동원하고, 고문·살해까지 한 일당의 범죄와 피해 실태가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 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도 유사한 조직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회장 천즈다로,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며 카지노와 스킴 센터로 쓰이는 단지를 건설,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가디언은 1987년 중국 출신인 천즈가 빠르게 부를 축적해 캄보디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바누아투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프린스와 연계된 ‘진베이 그룹’,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의 스킴 센터들이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폐쇄된 카지노나 특수 목적 시설로 유인하고 고문으로 위협하며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다.
사기 방식에는 범행 표적과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 더 큰 돈을 사기성 암호화폐 계획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겉보기에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이나 온라인 도박 플랫폼 등으로 돈을 세탁한다고 한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런 끔찍한 스킴 센터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그 돈을 묻어두기 위해 런던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서 천즈 회장을 비롯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미·영 제재 주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 그룹(Prince Group)·회장

- 회장 천즈(1987년 중국에서 출생) 중심 캄보디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사업 활동
- 카지노와 스킴(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 건설 및 대리인 통제 운영에 관여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사업체를 두고 런던 저택·건물 등 런던 부동산 등에 투자

진베이 그룹

-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바이엑스 거래소

- 진베이·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암호화폐 플랫폼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Golden Fortune Resorts World)

- 프린스 그룹 자회사가 건설, ‘기술 단지’로 위장해 프놈펜 외곽에 위치.
- 대규모 스킴 단지의 배후 회사

자료: 미국 재무부, 영국 가디언 등 종합

연합뉴스

- 가짜 구인 광고로 폐쇄된 카지노·특수 목적 시설로 외국인 유인, 고문·위협하며 온라인 사기 강요, 사기성 암호화폐 계획에 투자 유도 등으로 온라인 도박 플랫폼 자금 세탁

후이원(Huione) 그룹

-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 악의적인 사이버 사기·탈취로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 세탁 및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 세탁에 중요한 역할

- 미국 금융기관 관련 거래 금지
- 영국 사업체·부동산 즉각 동결, 영국의 금융체계 거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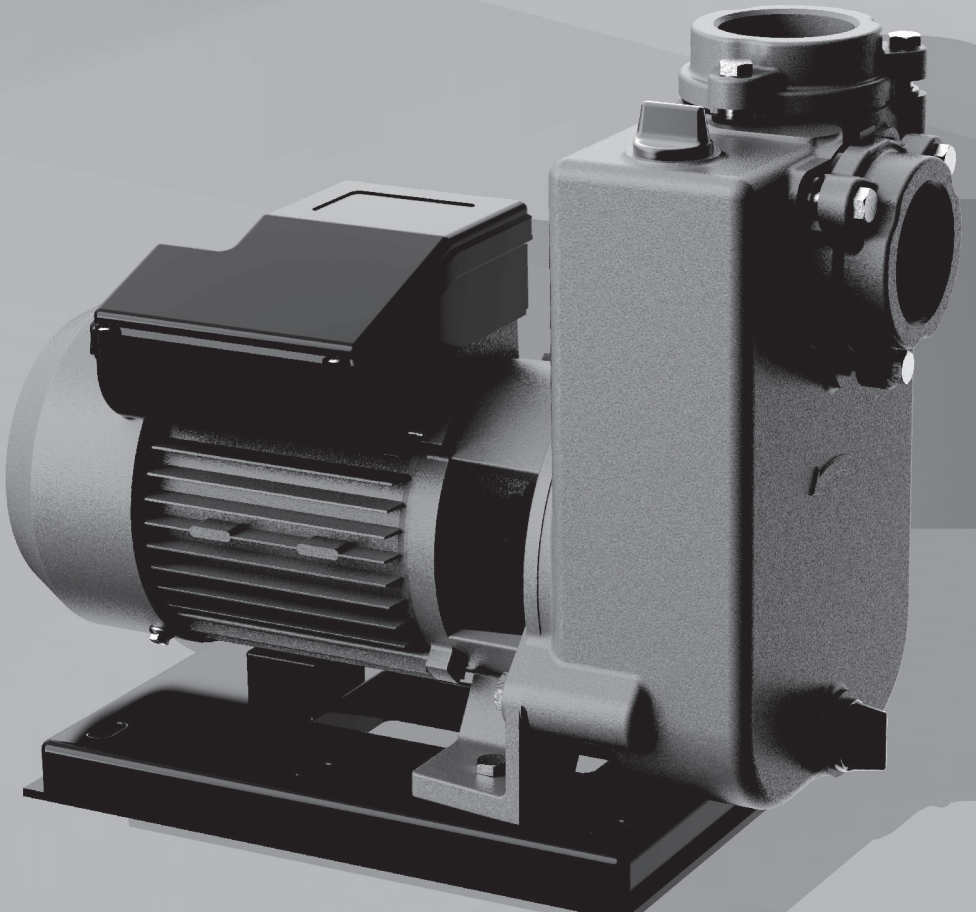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13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잦은 정전과 물 부족에 대한 전국 청소년 주도 시위 중 인디펜던스 애비뉴 시청 밖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연합뉴스

마다가스카르 ‘Z세대 분노’ 통했다

시위 19일만에 대통령 탄핵안 가결…군부, 대통령궁 장악

마다가스카르의 거리가 환호로 들끓었다.
14일(현지시간) Z세대가 주도한 격렬한 시위 끝에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고, 수도 안타나나리보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터뜨렸다.
개표가 공개 진행돼 105번째 찬성표가 나오자 의원들은 “사슬에서 벗어났다”고 외쳤고, NYT는 차량 경적과 젊은이들의 환호가 도심을 메웠다고 전했다.
곧바로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했던 육군 엘리트 캅사트(CAPSAT) 부대가 대통령궁을 장악했다.
지휘관 마이클 란드리아니라나 대령은 최대 2년간 의회·정부·사법부 연합체가 통치하는 과도체제를 선포했고, 최고법원·선관위·상원 등 국가기관을

해체했다.
하원은 기능을 유지한다. 해외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진 라조엘리나는 절차 위법을 주장하지만 민심은 등을 돌렸다.
Z세대 시위 발발 19일 만의 정권 붕괴로, 마다가스카르는 네팔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인도네시아·필리핀·케냐·아르헨티나 등으로 ‘승리’의 파급이 번질지 주목되지만, 군부 통치가 길어질 경우 국제 고립과 정세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라조엘리나는 2009년 군부와 반정부 시위의 힘으로 과도정권 정상에 오른 뒤 2018년 집권, 2023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를 권좌에 올렸던 캅사트가 등을 돌리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